

• ENSEMBLE STARS!! •

# MELLOW DEAR US

**Chocolat Assort**

MELLOW DEAR US  
A Secret Original Scenario

KOJIKAI JUIS  
KUON MASHU



MADOKA NOZOMI  
TSUZURA CHITOSE

 **MELLOW DEAR US**   
**Chocolat Assort**

A Secret Original Scenario

**MELLOW  
DEARUS**  
Chocolat Assort

**ENSEMBLE STARS!!**



누구보다 기대에 보답하는  
너의 No.1 토르테

# 코지카 쥬이스

*Kojika Juise*



## PROFILE

당당한 성격으로 늘 침착하다.  
타고난 피지컬을 살리면서 풍부한 표정  
연출로 팬들을 매료한다.  
「MELLOW DEAR US」의 리더.  
퍼포먼스 담당이자 메인 보컬.

- 키 — 180cm
- 체중 — 66kg
- 나이 — 21

하인에게 자상한  
가나슈 님

마도카 노조미  
*Madoka Nozomi*



• MEMBER PROFILE •

#### PROFILE

도도한 성격이며, 팬들에게 여왕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보여 주고 있다.

「MELLOW DEAR US」의 비주얼 담당이자 메인 래퍼.

● 키 — 176cm

● 체중 — 59kg

● 나이 — 20

분위기를 띄우는 데 탁월한  
플리데볼러

쿠온 마슈   
*Kuon Mashu*



#### PROFILE

밝고 불임성 있는 성격. 서커스 출신으로  
가벼운 몸놀림과 뛰어난 기교를 살려  
활동하고 있다.

「MELLOW DEAR US」의 댄스  
담당이자 메인 댄서.

● 키 — 170cm

● 체중 — 56kg

● 나이 — 23



부드럽고 스위트한  
브라우니

**츠즈라 치토세**  
*Tsuzura Chitose*



#### PROFILE

밝고 부드러운 성격.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부드럽고 달콤한 음색을 무드에 맞춰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MELLOW DEAR US」의 비주얼 담당이자 올라운더.

키 — 175cm

체중 — 57kg

나이 — 24

## 01

매일 먹고 싶은 토르테이니까

코지카 쥬이스

07

## 02

그 가나슈에는 독이 있다

마도카 노조미

15

## 03

무중력 상태의 플뢰데볼러

쿠온 마슈

24

## 04

어차피 브라우니도 모를 거야

츠즈라 치토세

33

01

매일 먹고 싶은 토르테이니까

코지카 쥬이스



## 매일 먹고 싶은 토르테이니까

우리 집에서는 편애가 의무였다.

그걸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였다고.

머리가 이상한 거지. 하하하.

어렸을 땐 반항기 또는 사춘기였달까, 다른 집안과 나를 비교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우리 집은 위험한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하는 의문을 품고 날뛰었다.

아, 아니, 지금도 집안에선 날 망나니로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반은 의절당해서 이렇게 멋대로 하고 있다.

딱히 지금은 이해한달까,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내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았다.

우리 집안의 뼈똥어진 전통에.

\* \* \*

「아니, 편애가 의무라니 무슨 뜻이야?」

뭔가 귀여운 딸기셰이크 같은 걸 훌쩍훌쩍 마시면서 쿠온이 물었다.

어딘가 건전한 초등학교에서 산지 직송해 왔다고 해도 깜빡 속을 것만 같은 천진난만한 언행과 동안.

하지만 귀에는 마치 어느 조직 사람인 것처럼 피어싱 구멍이 잔뜩 뚫려 있었다.

순수함과 거친 매력이 적절히 섞인 그의 이름은 쿠온 마슈다.

「아저씨는 잘 모르겠어~ 젊음이 특유의 엉뚱한 자기 이야기 같은 건데. 뭐가 위험한지 모르겠어. 오히려 위험하다는 의미 자체를 모르겠네」

이상한 일인칭에서 알 수 있듯 쿠온의 별명은 아저씨다.

본인도 그렇게 불리고 싶어 하는, 정말 이상한 녀석이다.

뭐, 무대 위에서는 제대로 하니까, 사생활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말이야——」

평소에 자주 가는 카페.

아니, 사실 거리에 있는 모든 카페가 나에겐 마음에 드는, 자주 가는 단골 가게나 다름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요즘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가게.

점주의 인격이 괴팍한 탓인지(요즘 그런 가게는 바로 인터넷에서 퍼지고 파리만 날리게 된다) 항상 손님이 별로 없어서 좋다.

이상한 녀석들과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그다지 문제도 되지 않는다.

나 자신은 딱히 재미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 주위에 모이는 녀석들은 어째선지 하나같이 특이하니까.

평범하게 길을 걷기만 해도 이상하게 시선을 끈다.

뭐, 그건 요즘 우리가 아이돌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다지 나돌아 다니지 말라는 소리를 듣지만 말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상관없잖아?

「우리 집안이 제법 역사가 깊고 고귀한 가문인 건 알고 있겠지」

「응,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크흠, 단 걸 마시는 바람에 속이 더부룩했는지 트림을 하고는, 쿠온이 쑥스러운듯 입을 가렸다.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 다 귀엽네. 아저씨 주제에.

「언행 하나하나에서 쥬이스 군이 고귀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건 알겠어. 서커스단에서 자란 아저씨는 자아낼 수 없는 기품이랄까, 그런 것 말이야?」

「쿠온도 제대로 슈트를 입고 매너 있게 행동하면…… 아니, 무리인가, 어린이 행사인 시치고산처럼 될 것 같네」

「그러게, 아저씨티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

「네가 말하는 "아저씨"의 정의를 잘 모르겠네」

「그리고 보니, 전에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 같아. 으음, 제트 뭔가 하는 몬스터 같은 이름의——」

「ZK 재벌. 일본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흘러 들어온, 오래된 가문이고 우리 집안은 그 분가에 해당한다고 해」

관심 없으니까 자세한 건 조사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든 일에 무관심한 마도카 녀석을 나쁘게 말할 처지가 아니네.

그 녀석과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반성하자.

「어쨌든 재벌 해체 정책의 여파로 기울게 됐고, 이제 국내에서는 텐쇼인이라는 다른 재벌이 패권을 쥐고 있지만 말이야」

「앗, 들어본 적 있어. 이것 봐, 이 종이컵도 메이드 인 텐쇼인이야」

「거긴 다양한 걸 하고 있구나」

「유명한 건 항공 회사랑 제과 회사? 어라, 거긴 그냥 계열사 같은 거였나?」

「뭐, 어쨌든 폭넓게 뭐든 하는 재벌 같네——텐쇼인은. 요즘은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게, 주로 아이돌 업계에서 대활약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아, 요즘 떠들썩한 ES가 어찌고 하는 거기?」

「하하. 정치나 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까, 우리도」  
「그런 건 높으신 분들, 죠이스 군의 사촌 같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녀석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뭐랄까, 좀 더 그, 추상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추상적인 거?」  
「사랑이라든지」  
「순정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야?」  
「그런 생물이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야. 아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ES까지 끌어들이어서 패권을 쥐려는 것 같아」  
「사람들은 추상적인 걸 의외로 좋아하니까」  
「사랑 같은 거 말이야」  
의미 없이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음이 터졌고 또 의미 없이 종이컵을 들고 건배했다.  
아, 인생이란 멋지구나.

\* \* \*

「——누구 허락을 받고 내 죠이스와 꿈냥꿈냥하는 거죠, 신입?」  
어린 소녀처럼 키득키득 웃고 있는 쿠온의 뒤에서 「으음」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마도카가 갑자기 나타났다.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일본 남자인가?  
그리고 난 마도카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오히려 반대 아닌가?  
「또 지배를 주제로 토론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 거 좋아하네요, 죠이스」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건 마도카잖아? 그건 그렇고 갑자기 뭐야, 넌?」  
「『모처럼 신입과 즐겁게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라고요? 아, 질투나, 어떡해야 죠이스 씨의 마음을 오직 나에게만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뭐야, 아저씨 트집 잡힌 거야~? 억울한데?」  
마도카의 기행에도 놀라지 않고 태연한(실제로 서커스단에서 자랐으니까, 기묘한 것을 보면서 자라서 포용력이 엄청나다) 쿠온이 갑자기 엉뚱한 곳을 쳐다봤다.  
왜 그러지? 귀신이라도 본 건가?  
「그것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네. 어~이, 항상 그렇지만, 치토세 군 혼자 멀리 있지 말고 같이 대화하는 게 어때?」  
「아, 응…… 하지만, 괜찮아, 보기만 해도」

실제로 행복한 듯 생글생글 미소 지으면서 4인조 중의 마지막 한 명——츠즈라 치토세가 수줍어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연장자인데 이 녀석도 뭔가 말과 행동이 귀엽단 말이지.

「후후. 저기, 두 사람 무슨 얘기해? 재밌어 보이던데?」

「잠깐 사랑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말한 뒤, 쿠온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둘이 웃고 있으니, 마도카가 어디선가 식칼을 꺼내 와서는 나와 쿠온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었다.

「죽을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것이 문제네요」

「뭐야, 그 기분 나쁜 햄릿은」

항상 생각하지만 괜찮은 거냐? 제정신인가, 이 녀석은?

「됐으니까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앉아. 그리고 보니 다음 스케줄 회의를 하려고 너희를 부른 게 지금 생각났구만」

「응. 그렇지. 집합 시간이 돼도 두 사람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아저씨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지 의심했다고」

다 마신 종이컵을 가볍게 쓰레기통에 던져 넣고, 쿠온이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저씨는 다 마셨으니까, 추가 주문하는 김에 너희 주문도 해줄게. 다들 마시고 싶은 거 있어?」

「지금은 신입이 고통받고 절망하면서 흘린 피가 마시고 싶네요」

「앗, 으음, 난 모르겠으니까 맡길게♪」

「나도, 항상 마시던 걸로」

「대단하네~ 다들 각자 다른 이유로 곤란한 대답을 하는 건 그만해 줄래?」

쿠온은 마도카와 츠즈라, 그리고 내 대답을 각각 듣고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음료 주문 카운터로 향했다.

뭐, 녀석한테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올 게 분명하다.

쿠온은 여기서 가장 신입이지만, 경력은 누구보다도 길고 서커스단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인생 경험이 풍부하니까——믿음직스럽다.

집단생활의 핵심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녀석이니까.

실제로 우린 그런 인재를 목이 빠지게 기다려왔다.

난 내가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 길을 가니까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고, 마도카는 비정상인 데다가 츠즈라도 좋은 사람이지만 사교성이 너무 없으니 말이다.

\* \*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저씨를 향해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있자, 그런 내 앞에 「으음」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마도카가 얼굴을 내밀었다.

「나, 저 녀석, 싫어. 처리, 해, 해야 해」

「왜 그러냐, 마도카. 갑자기 지능이 퇴화하고 있잖아」

「후후. 노조미 씨는 누구보다도 똑똑한데 죠이스 씨에 관해서만 바보가 되잖아. 좀 귀엽네——으음!? 엇, 뭐야, 폭력이야? 그만두라고!」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허둥지둥하는 츠즈라 군을 보고, 마도카는 한숨을 쉬면서 내 옆으로 의자를 이동해 자리에 앉았다. 거리가 가깝잖아. 뭐, 상관없지만.

「그래서 저 신입하고 제대로 헤어지고 나와 혼인 신고를 할 건가요?」

「엇, 뭐야, 얘기가 거기까지 진행된 거야? 두근두근……♪」

「아니, 진짜 무슨 소리야?」

아저씨~ 얼른 돌아오라고~

이 두 사람과 대화하면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비행사가 된 기분이라고.

「그게 사랑 이야기가 어찌고——」

「아니, 그건 사소한 부분이랄까, 대화의 흐름에서 생겨난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농담 같은 거고. 실제로는 우리 집안 얘기를 한 거라고」

「앗, 뭔가 죠이스 씨, 귀족 같은 집안 출신이었지」

같이 앉으면 되는데 어째선지 굳이 옆 좌석의 가장 떨어진 의자에 앉은 츠즈라가 태평하게 묻는다. 아니, 넌 목소리가 작으니까 더 가까이 오라고.

「그러니까, 나와 죠이스는 신분이 달라서 허락받지 못한 금단의 사랑이라는 거네요. 불타오르네요」

「어~ 대단해~ 연애 드라마 같네, 잘 모르겠지만」

「.....」

「기다렸지~ 어디까지 얘기했어? 아저씨가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

돌아온 아저씨가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

\* \* \*

아저씨라고 하는 쿠온은 사람 좋게 웃으며 모두의 앞에 음료를 두기 시작했다.

「자, 노조미 군은 머리를 좀 식혔으면 좋겠으니까 아이스크림. 치토세 군은 반대로 기운을 냈으면 좋겠으니까 핫초코. 죠이스 군은 힌트가 없어서 한동안 생각했는데 귀찮아져서 포기하고, 점원분한테 "항상 마시던 것"이 뭔지 물어보고 평범한 홍차로」

「항상 네 존재에 구원받고 있다, 쿠온. 정말 고맙다」

「뭐?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죠이스 군?」

「내 앞에서 신입과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질투가 나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마도카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게 정말 질투야? 인간에게 기생하는 유형의 외계인 같은 게 아니고?」

얘기가 너무 짠 데로 됐으니까, 판소리는 이 정도만 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했다.

중요한 일도 아니고, 일 이야기도 하고 싶으니까, 여기선 일찍 마무리하자.

늦게 온 두 사람에게(슬쩍 시계를 확인했는데 세 시간이나 지각했다.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오히려 감탄했다) 쿠온에게 말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적당히 추가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본가인 ZK 재벌은 아무리 해도 1위가 될 수 없는 만년 2위인 불쌍한 재벌이라고」

그래서 녀석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골고루 배팅을 해 봐도 텐쇼인 재벌에는 이길 수 없으니까, 뭔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로 한 거다.

「호오~…… 대단하네, 잘 모르겠지만」

「아니, 치토세는 알아야죠. 치토세가 무얼 하든 상관없지만, 당신은 항상 여기저기 손을 대서 실패하는 이미지니까요」

의외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지, 츠즈라와 마도카는.

그래서 가끔 결탁하니까 귀찮거든, 이 외계인들.

「응. 그러니까 정리하면 츠즈라처럼 모든 분야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실패해 왔으니까, 이 분야라면 텐쇼인에게 지지 않을 것 같은 분야를 만들려고 한 거야」

「그게 뭔데? 이름이 재밌는 정도 같은 거라든가?」

「아니, 확실히 ZK 재벌은 절경의 말장난 같아서 재밌지만, 그게 아니라 쿠온, ZK 재벌은 구성원 하나하나를 뭔가 하나의 분야에 특화하려고 했어」

「아, 편애가 의무라는 게 그런 뜻인 거야?」

「맞아. 그런데 누가 무엇을 편애하는지는 자기 의사로는 결정할 수 없어. 각자 아이의 재능을 보고 위에서 멋대로 판단해서 지시하고 강요하는 거야」

「그거, 본능적으로 무리인 일을 편애하라고 하면 지옥이겠네요」

「아니야, 마도카, 그게 무엇이든 지옥이라고」

실제로 지옥이었다.

ZK 재벌에 관련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강제로 무언가를 편애하는 자(Paranoia)가 돼서 점점 제정신을 잃어갔다.

인간은 단 하나만을 계속 사랑할 수 없다.

평생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는데도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 것이 그 증거다.

물론 제대로 편애——아니, 순애를 지킬 수 있는 부부도 많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겠지.

하지만 ZK 재벌이 강요하는 편애는 이룰테면 중매결혼이다. 멋대로 너에게는 이 아이가 어울린다고 정해서 결혼 상대를 정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멋대로 정해진 상대만을 사랑해야 한다.

그딴 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ZK 재벌에서 정상적인 건, 우연히 강요받은 편애 대상과 궁합이 좋아서 계속 사랑할 수 있었던 녀석——본가의 차기 당주로 소문난 아마노하시다테 아가씨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분가 쪽이지만 원래부터 미쳐 있었던 탓에 오히려 광기를 강요당하면서 한 바퀴 돌아 되레 제정신처럼 보이는, 우리 정신 나간 사촌이라든지.

그리고 위에서 내놨달까, 멋대로 하는 걸 허락받은 나 정도일지도.

「참고로 쥬이스는 무엇을 사랑하도록 강요받았나요?」

「카페 아닐까. 뭔가 항상 카페에 있잖아, 쥬이스 군」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각자 제멋대로 말하고 있지만, 정답은 비밀로 해두자.

실제로 나와 내가 사랑하도록 강요받은 "중매결혼 상대"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순조롭다고 생각하겠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만하고 금실 좋은 부부.

내실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나름대로 자유로운 위치를 손에 넣었다.

그러니까 난 그것이 기만일지라도, 오늘도 사랑의 말을 내뱉을 거다.

「그럼 잡담은 이 정도로 하고 일 이야기도 제대로 해 볼까」

웃으면서.

행복해 마지않는 얼굴로 말이야.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돌 이야기를 하자」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매일 먹으면, 언젠가 정말 맛있게 느껴질 것 같으니까.

02

그 가나슈에는 독이 있다

마도카 노조미



## 그 가나슈에는 독이 있다

지배, 라는 단어에는 편견이 있다.

세상에는 그런 단어가 너무 많다.

거짓말, 악, 그로테스크, 종교, 그리고 지배.

그러한 단어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색안경 낀 녀석들에게 과하게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모두가 그건 상식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

\* \* \*

추억 이야기를 하나 해 보자.

그건 아직 내가 세상 사람들 대부분과 똑같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상식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아니, 믿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난 그래야만 했으니까.

사람을 능숙하게 흉내 내야만 괴물은 인간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었다.

살아남기 위해.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준 자랑할 만한 선조들처럼.

하지만 당시 난 중학생이었다.

사춘기, 반항기라고 불리는 시기다.

난 내 주변을 채우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을 부풀어 오른 자존심으로, 막 싹튼 자아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어린 시절에 발병하는 병.

사춘기라는 병에 걸려서 나는 주위의 모든 것을 다시 채점해 보았다.

사랑, 우정, 자유, 정의, 평등, 공평.

—세상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주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그것들의 점수는 사실 몇 점일까?

증오, 박해, 차별, 사기, 맹신, 종속.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얕보며 낮은 점수를 주는 꼴사나운 것들.

그것들의 점수는 사실 몇 점일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아무래도 좋다.

어차피 누구도 그 채점 방식에 의문을 품지 않고 그저 순순히 믿고 있을 뿐이다.

과거 누군가가 인류라는 종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멋대로 정한 채점 방식이다.  
그게 맞는 것이라고 누구나 의심 하나 없이 믿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

\* \* \*

난 실험해 봤다.  
중학교 교실이라는 좁고 작은 세계는 실험실로 쓰기에 좋았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시험관.  
거기에 독약을 부으면 어떤 색깔로 변할까?  
「반장으로 뽑힌 마도카 노조미입니다」  
난 귀찮은 역할을 강요받은 불쌍한 피해자인 척하면서 참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자기소개를 했다.  
「뽑기 운이 나빠서 맡게 된 일이지만 열심히 할게요」  
실제로 내 목적을 누구에게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뽑기 상자를 조작할 때도  
전혀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난 운 나쁘게 우연히 신의 변덕으로 반장이 됐다.  
선생님께 잡무를 강요받거나 청춘을 허비하며 죽어라 일하게 된다.  
손해 보는 역할을 맡게 된 불쌍한 녀석.  
「다 같이 사이좋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봅시다」  
나는 속마음과 똑같은 울림과 무게를 지닌 거짓말을 하고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자, 실험 시작이다.

\* \* \*

「괴롭힘은 아주 나쁜 짓입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어느 날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연설했다.  
어딜 봐도 고지식해 보이는 반장답게.  
정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자애로운 말을 했다.  
「그래서 괴롭힘은 나쁜 짓이니, 다들 ●△ 군을 괴롭히지 맙시다」  
●△ 군의 본명은 잊었다.  
그건 그렇고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라도 그건 숨겨야겠지.  
어쨌든 그 시기엔 전국 배움의 현장에서, 아니, 어른들의 사회에서도 아주 흔하게

행해지고 있던 행위가——괴롭힘, 약자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다.

대상은 못생기고 둔해서 나쁜 의미로 튀었지만, 딱히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범죄자 취급받을 이유 따위 없었던 한 명의 남자였다.

그는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었다.

동시에 바보 취급을 받고 툭툭 치이며 화풀이 장난감이 되어 있었다.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나쁜 짓입니다. 그만두세요」

난 교실 한구석에서 얼굴을 붉히며 수치심인지, 고마움인지 모를 뜨거운 시선을 보내는 그에게——●△ 군에게 눈짓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만은 네 편이야, 라는 표정으로.

우리가 정의니까 가슴을 당당히 펴야 해, 같은 태도로.

「이대로 계속 괴롭힌다면, 선생님에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협박했다.

다수파에 그렇게 도발적인 말을 하고 싸움을 걸면,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했다.

그날부터 나 역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 \* \*

나는 교실의 다수파에게 적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그런 나는 교실에서 고립됐다.

괴롭힘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닌가?

하지만 당연히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정의고——

이 교실에서의 정의는 달랐다.

난 그들 다수파의 즐거움을 빼앗고, 협박까지 한 얄미운 적이 돼 버렸다.

적은 발로 차고 짓밟는 게 맞다.

특촬 히어로가 괴인을 발로 차서 죽이는 것과 같다.

해충을 슬리퍼로 때려죽이는 것과도 같다.

그것을 제지하고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부정하고 욕하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들이 옳고 내가 틀렸다.

잘못했으니까 벌받아야 한다.

난 엉망진창으로 짓밟혀졌다.

그때까지의 ●△ 군과 똑같이.

힘을 합친 정의의 편에게 철저히 짓밟혔다.

하지만 그건 내 목적이었다.

실험은 성공했다.

난 냄새나고, 더럽고, 보기 흉한 것으로서 짓밟혀지면서 내심 만족했다.

「알겠나요」

난 태연하게 다수파로 갈아타고, 나를 오물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 군을 올려다보면서 신이 나서 말했다.

「당신의, 당신들의 행동은 모두 제가 예상한 대로네요」

얼굴을 걷어차였다.

「당신들은 강자인 척을 하며 약자인 저를 박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런 약자인 저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침을 뱉었다.

「이 경우에 누가 강자일까요?」

난 웃으면서 지론을 말했다.

아마도 전해지지 않을 테니까,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저기, 이 경우엔 누가 지배자일까요?」

누구도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학교가 강요한 정답을 순순히 정답이라고 믿고, 그 단어에 포함된 풍부한 의미에 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사고를 멈춘 채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뿐이다.

아아, 사랑스러운 동물들.

난 그런 이성도, 지성도 없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되고 싶다.

흉내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선조 대대로 타성에 젖어 계속 이어왔을 뿐인 무가치한 전통이라고 해도.

나는, 나만큼은, 그것이 옳으니까, 옳다면서 사고를 멈추지 않고——내 머리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바랐기에, 필사적으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죠이스.

친구여. 나는 그만큼 진지하게, 순수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 군은 이해해 주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도 누구 하나 날 이해해 주지 않았다.

지배자가 누구인지 알아주지 않았다.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조종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매도당하고 침을 뱉어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나에게겐 그들을 완벽히 지배하고 제압한다는 실감이 났으니까.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난 만족했다.

만족하면서 나를 향한 가해의 증거 사진 등을 모으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괴롭히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면담하고 협박해——

내가 언제든지 그들의 인생을 파탄 낼 수 있다고 알려줬다.

\* \* \*

그 순간 모든 것이 역전했다.

그들은 약자를 괴롭히는 오만한 폭군에서 가여운 노예로 전락했다.

그들의 인생은 이미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앞으로 아무리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어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우자를 얻고 행복한 결혼을 해도.

내가 『그는 어린 시절에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혔다』라는 사실을 증거 사진이나 녹음과 함께 제시하기만 하면——

산산조각 난다.

그들은 한순간에 파멸한다.

그것을 이해한 순간부터 그들은 나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전락했다.

저기, 이제 아무리 바보라도 알겠지?

어느 쪽이 지배자인지.

누가, 지배자인지.

\* \* \*

「마도카가 전부터 지독하게 음습하고 속이 시커먼 재수 없는 녀석이라는 건 알겠어」

나의 친구 코지카 류이스가 좋아하는 카페(뭐, 그가 좋아하는 카페는 전국 방방곡곡에 있어서 그 수를 세는 건 아무리 나라도 귀찮을 정도다) 안에서 그답게 고상한 분위기로 심한 말을 했다.

일그러지는 순간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 완벽한 이목구비.

언제나 산뜻함을 풍기는 초록색 머리카락과 눈동자.

한쪽 귀에만 반짝이는 피어싱조차도 그에게 불안정함이나 불완전함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아아, 죠이스.

어떻게 해서든 너를 갖고 싶지만.

너의 완벽함을 유지한 채, 너를 손에 넣는 방법을 모르겠다.

나는 타인을 제멋대로 비틀고, 더럽히고, 나에게 딱 맞는 모습으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밖에 지배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을 모른다.

그러니 너를 더럽히지 않고, 손에 넣는 방법을 모르겠다.

평소에 하는 방법으로 너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그런 너는 이미 내가 원하는 네가 아니다.

「그래서?」

죠이스는 나의 더러운 욕망을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지만, 언제나처럼 조금의 더러움도 없는 산뜻한 태도로 질문해 온다.

「그 기분 나쁜 과거 이야기와 네가 일을 게을리하는 인과 관계가 뭔데?」

「나는——」

난 죠이스가 걸터앉은 의자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더러운 가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루해졌거든요」

「응」

「너무 간단해서, 이젠 재미없어졌어요」

「일은 일이니까, 재밌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

죠이스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찻잔을 들어 올리고, 연한 갈색 액체를 기분 좋은 듯 훌쩍이면서 담담하게 말했다.

「불평이나 불만은 있겠지만, 즐겁지 않다고 해도 일이니까 제대로 하라고」

「예상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제 예정된 일을 예정된 대로 처리하는 데서는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게 됐는데요?」

「너의 나쁜 버릇이야, 마도카」

죠이스는 분명 나보다 차에 더 빠져 있는 듯했고, 나에게 하는 말도 어딘가 건성으로 던지는 느낌이었다.

「포기하는 게 너무 빠르잖아. 끝까지 참고 해내면 예상하지도 못한 유쾌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경험상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똑똑한 너에게는 앞으로의 전개가 너무 잘 보여서 재미가 없으니, 일하기 싫다는 논리인가. 여러 번 질리도록 읽어서 내용까지 기억한 책을 읽는 것과 같은 거겠지, 너한테

있어서 인생이란」

쥬이스는 흥차를 소중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신 뒤, 드디어 날 상대해 줄 마음이 생겼는지 불쑥 몸을 숙여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직 사람 손이 닿지 않은 풍성하고도 거대한 숲 같은 그 눈동자로.

「그럼, 나도 같이 해줄게」

「네?」

「넌 아직 나한테는 질리지 않았잖아. 완전히 읽어내지 못했어. 그래서 함께 있는 거잖아, 아니야?」

「네.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아직도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에요」

「그럼, 너한테 미지의 대상인 내가 같이 일을 하면」

쥬이스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간단한 문제를 풀듯 말한다.

「너에게 예상외로 재밌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이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불확정 요소를 끼워 넣으면, 나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나도 즐길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건가요?」

「응, 그런 논리로 해보자」

쥬이스는 멋있는 척 손가락을 튕기면서 점원을 불렀고, 익숙하게 계산을 끝내고 내 목덜미를 움켜잡고 일으켰다.

여전히 엄청난 힘이네. 상큼한 얼굴의 고릴라 녀석.

「자, 가자, 마도카. 다른 녀석들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강압적인 논리와 완력으로 나를 제압할 생각이라 해도——」

「지배하는 건 네 녀석이라는 거지.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가끔은 노예에게 채찍이 아니라 당근도 주라고——주인님」

어느 쪽이 지배하고 있는 걸까?

저기, 이 경우에는 어느 쪽이 지배자일까?

그 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모르니까 재밌다.

「네. 어쩔 수 없네요. 정말 귀찮지만요」

나 역시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기에.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의 의미가 모든 단어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늘도 보상을 원하는 노예처럼」

그러니까 난 오늘도, 아직 오늘만큼은 열심히 해볼까.

살아볼까.

「동시에, 새로운 영토를 손에 넣은 왕처럼」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비록 흉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지루한 인간으로서.

# 03

## 무중력 상태의 플뢰데볼러

쿠온 마슈



## 무중력 상태의 플뢰데볼러

자랑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죽을 뻔했던 적이 다섯 번 있다.

처음은 아기였을 때.

말에게 걷어차여서 죽을 뻔했다.

물론 말은 나쁘지 않다. 나쁜 것은 무지와 타이밍, 그리고 운이다.

난 서커스단 소속이었다.

광대인 남자와, 지금은 입에 담는 것도 꺼려지는 이형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당연히 가업을 잇는 셈으로, 나 역시 태어난 순간부터 서커스단에 소속될 운명이었다.

물론 누가 강요한 건 아니다.

편견 어린 시선을 받는 일도 많지만, 서커스단 사람들이 아무리 기묘하고 별나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도덕이나 윤리에 벗어나 있지는 않다.

평범한 엄마와 아빠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서커스단에 소속되기로 했던 건, 어디까지나 내 자유의지다.

마법이라도 부리듯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바꾸는 아빠처럼 되고 싶었다.

아무리 비웃음을 사고 이상한 시선을 받아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듯 언제나 웃고 있는 엄마처럼 되고 싶었다.

그때의 나는 이상한 나라의 주민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신기해!』하고 생각할 만한 환경에서, 그럼에도 올곧고 건전하게 무럭무럭 자라난 것이다.

이건 자랑이다. 아저씨는 자랑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자란 서커스단 텐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당연하다는 듯 널려 있었다.

동물도 많았다.

강아지나 고양이라면 어디에나 있고, 물론 재주를 가르치기 쉬워서 서커스단에도 잔뜩 있었지만.

거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동물도 많이 있었다.

희귀한 종류로는 사자나 호랑이, 큰 도마뱀이라든지.

범고래 같은 것도 있었지. 타조도.

그런 재밌고 우스운 "유쾌한 동료들" 안에서는 수수한 편이지만, 노동력으로 따지면 말이 최강이다.

탈 수도 있고, 짐을 나를 수도 있다. 심지어 재주까지 부릴 수 있다.

말은 호감이 가는 인상이니까, 그 녀석은 서커스단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나도 물론 무척 좋아했고, 너무 좋아하니까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걷어차였다.

물론 말이 나쁜 건 아니다. 그 녀석은 크니까, 아마도 콩알만 한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다리에 뭔가 끈적거리는 게 붙어 있다고 생각했겠지?

근질근질해서 가려운 곳을 긁는 느낌으로 발을 획 차올렸을 뿐일 테다.

그리고, 내가 걷어차인 것이다.

그 우스운 이야기에서 내가 얻은 교훈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상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에게 걷어차이면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아, 응, 웃긴 이야기로 말하는 거니까, 웃어도 괜찮은데?

\* \* \*

그 뒤로도 난 실수로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두 번째는 드디어 평범하게 걷거나 말할 수 있게 됐을 때였다.

그때까지 누군가가 나를 안고 다녔는데, 내 의지대로 내 몸이라는 장난감을 움직이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재미있고 통쾌해서, 함부로 "그것"을 가지고 원 없이 놀았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당연한 결과다.

모든 장난감에는 정해지는 권장 연령이라는 것이 있다. 작은 부품은 실수로 먹을 위험이 있다. 뽀족한 장난감은 아직 연약한 아이의 피부를 다치게 한다.

물론 난 어렸고, 그런 상식을 알 리가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믿는 아이 특유의 전지전능하다는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것을 마구 만졌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상한 나라였으니까.

서커스단의 텐트 안에는 동심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것으로 넘쳐났다.

알록달록한 저글링 도구.

한 발 자전거와 엄청나게 큰 타이어의 두발자전거.

길거리에서 입고 돌아다니면 신고당할 것 같은 기묘한 의상.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신기한 동물들과 그 이상으로 희한한 곡예사들.

예쁜 누나들의 화장도구도 작은 아이에겐 놀이 도구였다.

몸에 화학 약품을 잔뜩 바르고, 다른 단원을 흉내 내서 한발 자전거 위에서 한 발로 서고! 그대로 줄타기까지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희대의 천재 서커스 단원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냥 넘어졌다.

얼굴부터.

서커스 소품인지, 무대 장치인지 모를 뽀족한 것에 머리를 박았고, 무거운 금속이  
눈구멍으로 빨려 들어가 뇌에까지 박혔다.

불행 중 다행으로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것이, 아저씨가 죽을 뻔했던 두 번째 사건이다.

응? 가끔 일인칭이나 말투가 이상해지는 게 후유증 아니냐고?

이 말투는 단지 자란 환경의 문제라고!

어린 나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상한 나라의 주민들—— 서커스 단원들은  
하나같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재주를 지닌 달인들이라서.

다들 신에게 특별한 힘을 받은 초능력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동경하면서 유년기를 보냈고.

당연하게 연장자를 동경하게 된 거다.

마치 평범한 남자아이가 TV 속 특촬 히어로 같은 걸 동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위대한 스포츠 선수나, 그야말로 아이돌을 동경하는 것처럼.

나는 말이지,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동경했어.

주위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을.

\* \* \*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 세 번째와 네 번째!

세 번째쯤에는 나도 평범하게 수습생 느낌으로 서커스단 공연에 참가하게 됐다.

그래 봤자 공연 전에 분위기 띄우러 나오거나 바람잡이지만.

예쁜 옷을 입고 허리를 흔들면서 무대 위를 가로지르는 것. 그뿐이다.

원숭이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

물론 난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다른 단원에게 몰래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재주를 갈고닦았다.

당시에 마음에 들었던 건 줄타기.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였다.

중력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서 기분 좋아 보여~라고 생각했다.

참고로 우리 서커스단은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여러 나라에 갔으니까, 지상에 있는 건 다 본 것 같은 기분이다.

물론 그것도 젊은이 특유의 오만한 아는 척이지만.

지상은 전부 다 봤으니까, 이번엔 하늘도 정복해 보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줄타기를 동경했다.  
 공중그네도 좋아했지.  
 바보와 연기는 높은 곳을 좋아한다는데.  
 당시의 나도 그런 느낌이었다. 지금도 그러려나?  
 일단 이래 봐도 서커스단의 순수 혈통이니까. 의외로 옛날부터 기억력은 좋아서, 어떤 재주라도 잠시 훈련하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건방지게 엄마와 아빠 앞에서 방금 익힌 줄타기를 보여줬지.  
 그리고 떨어졌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 연습에서는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었는데.  
 그래도 아이돌과 서커스 곡예사는 엄밀히 보면 다르지만, 같은 무대 예술이니까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사고는 절대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때만 발생한다.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 믿음이 넘쳐흐를 때.  
 오늘 최고의 재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한 날에 말이다.  
 지금은 알 수 있다. 그건 착각이라는 걸. 사실은 너무 연습하거나 몸을 너무 혹사해서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뇌에 마약이 흘러 들어온 것처럼 들뜬 것뿐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을 뿐.  
 하지만 어차피 착각이고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니까——  
 뇌는 속여도 몸은 속일 수 없어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 바보 같지.  
 젊은 날의 객기 같은 거다.  
 네 번째도 같은 느낌으로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먹고 비교적 간단한 큰 공 타기를 해보다가.  
 큰 공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큰 공에 깔려서 죽을 뻔했다.  
 그때 기가 죽었다. 아무리 아저씨라고 해도.  
 혹시 난 재능이 없는 걸까?  
 위대한 엄마와 아빠의 아들인데도?  
 서커스에 소질이 없는 걸까?  
 옛날부터 난 비교적 낙천적인 성격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몸져누울 정도로 고민했다.  
 누구도 혼내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오로지 걱정만 했다.  
 그러니까 그런 착한 사람들을 웃게 하지 못하는 내가 한심해서.

울었다.

무대 위에서 공연 외의 목적으로 울면 안 되니까, 울지 않는 훈련도 했는데.

분하고 허무해서 울어버렸다.

다친 아픔보다도 자신의 무능함과 바보 같음에 진절머리가 나서 말이다.

\* \* \*

「알 것 같아……」

갑자기 내 말에 계속 응응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필사적으로 듣던 츠즈라 치토세 군이, 평소에 반응이 적은 그로서는 보기 드물게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이 아이』라고 하기엔 치토세 군이 더 나이가 많다. 어려 보이지만 24살이었나?)의 말버릇은 「잘 모르겠어」이니까, 이젠 역사에 남겨야 할 순간이다.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그 마음」

치토세 군은 별생각 없이 떠들고 있던 내 손을 꼭 잡고, 여전히 이상할 만큼 진지하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공감해 줬다.

「그래…… 그렇지, 진절머리가 나지」

촉촉한 검은 머릿결.

눈매가 매서운데 이상하게 연약해 보이는 눈빛.

늘 장례식장에 있는 것처럼 침울한 태도로 상복이 어울릴 것 같은 그는 부고를 전하듯 계속 말했다.

「나도, 그래…… 언제나 허무하고 한심해서 눈물이 나」

실제로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이 우수에 젖은 미인이 말했다.

「마슈썬—— 아니, 마슈 씨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데. 하지만 그런 마슈 씨도 그런 기분이 드는구나」

왠지 기쁘다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리면서 킁킁 웃는 치토세 군.

좋아, 공감 요소를 꺼내는 작전은 대성공이다.

이 아이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과 관계없다는 듯, 좋든 안 좋든 남 일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니까.

이건 너한테 하는 말이라는 게 전해졌다면 다행이지, 다행이야.

이 아이는 겸손하고 그게 미덕이지만, 시상식 같은 곳에서도 어쨌선지 자신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태도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서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나나 쥬이스 군이 신경 써서(노조미 군한테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는 걸 기대하지 않지만) 손짓해서 부르면 아주 의외라는 표정을 짓곤 한다.

자기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칭찬받아도, 칭찬한 사람이 뭔가 착각한 게 아닌가? 하는 태도를 보인다.  
칭찬하는 보람이 너무 없다. 아저씨는 칭찬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으음, 괜찮았어? 그렇게 죽을 뻔하고, 상처는?」

「응. 이젠 말했듯이 후유증 같은 건 없었고, 몸은 튼튼하니까, 아저씨는 보다시피 활력이 넘친다고」

「아, 아저씨라니…… 항상 생각하지만 내가 연상인데, 뭐가 그, 상관없지만 말이야!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자, 자. 그렇게 혼자서 결론 내리지 마. 딱히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않을 테니까.  
서커스 단원은 편견엔 익숙하거든」

「미, 미안해…… 하지만 그, 상처를 줄까 봐. 저기, 잘 모르지만, 딱히 마슈 씨가 그 정도  
일로 상처받을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치토세 군이 더 큰데도 능숙하게 올려다보면서, 손가락을 꼼질꼼질 하다가 갑자기——  
패닉에 빠졌다.

「아아, 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비판하는 것처럼 들렸지? 아니야! 아아, 큰일이야,  
말을 너무 못해! 무슨 말을 해야 정답일지 모르겠어!」

그냥 뒀다간 어디까지고 자기 비하에 매몰될 것 같고, 그러면 누구에게도 득 될 게  
없으니, 적당한 부분에서 멈추고 이야기로 돌아왔다.

이제 이런 일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이런, 이런. 정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저씨가 말하고 싶은 건——」

훌쩍거리는 치토세 군의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울고  
있다……) 확실히 말했다.

너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아니, 뭔가를 전하는 것이 서커스단의 일이지.

「그만큼 실패하고 죽을 뻔한 바보라도 이렇게 태연하게 실실 웃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물론 반성은 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대전제겠지만.

단 한 번의 실패로 전부 끝날 만큼 이 세계는 망겜이 아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믿고 있다.

이 세계는 확실히 가끔 잔혹하고 남의 마음 같은 건 전혀 모르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한 트럭이지만.

여기에는 확실히 엄마나 아빠 같은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단 한 명의 작은 실패로  
전부 무너질 만큼 이 세상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그러니까 치토세 군」

눈앞의 기죽어 있는 그의 손을 되레 꼭 잡고 난 웃었다.

언제나처럼.

웃는 얼굴이 좋으니까.

내가 웃는 것도, 웃는 사람을 보는 것도 정말 좋으니까.

「조금 실수했다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

「아니, 이 정도 이야기로 실수했다고 눈치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얘기를 듣고 놀랐잖아. 『미안해. 오늘 무대에서 노래 시작할 때 0.2초 늦게 시작했지, 미안해』 같은 건」

「하지만 그게..... 늦었으니까..... 사과해야지, 내가」

「치토세 군은 무대 위에선 밝고 순수한 캐릭터로 인기가 많은데, 왜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어둠 속성이 되는 거야. 이중인격이야?」

「무, 무대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캐릭터가 되기로 정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실수투성이라 미안해서」

「응. 반성하는 건 중요해.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목을 매려고 하는 건 그만두라고」

난 조금 전에 치토세 군한테서 빼앗은 밧줄을 손으로 흔들면서 한숨을 쉬었다.

「나야말로 죽는 줄 알았다고. 기숙사에 돌아와 보니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치토세 군이 발판에서 『에잇』 하고 밧줄을 내던고는 그대로 공중에 매달리는 거 있지. 깜짝 놀랐다니까」

「미안해..... 제대로 죽을 테니까.....」

「아니, 죽지 말라니까. 그 자살극, 실제로 보여주면 관객들이 다 도망갈 테니까, 무대 위에서는 절대 하지 마. 아니, 선배 권한으로 명령하는데 앞으로 두 번 다시 해선 안 돼!」

「선배라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하지만 그렇지, 경력은 마슈 씨가 기니까」

「태어날 때부터 서커스 단원이니까」

역시 상당히 귀찮아져서(안 지 가장 오래됐고, 이런 치토세 군을 계속 보살펴 주는 쥘리스 군은 꽤 이상한 것 같다) 이야기를 일단락 짓기로 했다.

어쨌든 동료의 자살은 막을 수 있었다.

내 마음도 전했다.

아니, 다시 전해볼까.

「네가 죽으면 난 슬퍼」

평소 동료들 사이에서는 일인칭이 「아저씨」지만(특히 미의식이 높은 노조미 군에게는

심한 혹평을 들었다), 역시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도는 진지하게 말해야겠다.

「그러니까 죽지 마. 앞으로도 사이좋게 웃으면서 다 같이 열심히 하자」

「노력은 할게…… 미안해, 뭔가 걱정 끼쳐서」

치토세 군도 내 뜻을 알아준 건지,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응응하고 말하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여줬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그가 고개를 가웃거렸다.

「……어라?」

「응, 왜 그래?」

「그리고 보니 마슈 씨, 인생에서 죽을 뻔했던 적이 다섯 번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어라, 네 번까지만 들은 것 같은데? 맞지?」

「아, 그렇구나. 마지막이 빠졌네. 중요한데 말이야」

내가 손에 든 밧줄을 자기 목에 감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저씨는 말이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우쭐한 표정으로 말하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어. 우리 항상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 눈앞에 사신이 서서 킬킬대며 웃고 있지」

잘 말한 걸까. 어떠려나?

넌 웃어줄까.

「우리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어. 나는 다섯 번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살아 있으니 고귀하잖아?」

너도 그런 고귀하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니까.

살아가자. 죽음을 서두를 필요 없어.

줄타기는 말이야, 끝까지 건너가야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으니까.

04

어차피 브라우니도 모를 거야

츠즈라 치토세



## 어차피 브라우니도 모를 거야

나한테는 어른의 재능이 없었을지도 몰라.

매년 세금 신고의 계절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아이돌이라는 불안정한 일을 하는 탓에 매년 손익 계산을 비롯한 이런저런 일들이 엉망진창이라, 자신이 얼마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어른으로서 부자연스럽고 부적절한 존재인지 여실히 보인다.

그러니까 매년 이 계절엔 우울해진다.

항상 우울하지만.

이 계절엔, 겨울엔 특히다.

춥기도 하고.

내 방에서 키우는 관엽식물도 이렇게 추우면 시들시들해지고.

시든 잎이나 줄기, 마른 흙에서 드러난 뿌리를 볼 때마다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미안해.

미안해……

추운 걸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너희들을 구매하고, 작은 화분 안에 구속해서 자유를—다른 선택지를 빼앗았다.

제대로 건강하게 길러낼 수 없다면, 나에게 무언가를 기를 자격은 없다.

\* \* \*

그 아이는 길모퉁이에 버려져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일본에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해외에선 드물게 종종 보이는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

그 아이는 그런 아이일 거라 생각했다.

불쌍하게도.

부모님, 보호자와 사별한 걸까.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이런 길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걸까.

나중에 그 아이에게 물어보니,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동정받을 때마다 일부러 물웅덩이에서 뒹굴며 진흙투성이가 됐다고 했지만.

당시에 난 내가 아직도 무언가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 정도의 자존심은 있었기에, 결국 동정심에 말을 걸었다.

「괜찮아?」

「.....」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머리부터 뒤집어쓴 너털너털한 외투 틈새로 이쪽을 흘끗 쳐다봤다.

마치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물론 당시의 나에게는 관찰력 같은 건 없었고, 그 아이가 나 따위가 알아차릴 만한 이상한 행동을 할 리가 없었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착각일까.

과거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왜곡하는 것뿐일까?

죽고 싶다. 난 정말 답이 없구나.

「여기서 뭐 해? 길을 잃은 거야? 엄마랑 아빠는?」

「일본인?」

그 아이의 대답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그래서 반응조차 못 하고 당황해하자, 그 아이는 엉망진창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깨끗한 순백의 치아를 보여주면서——즉, 웃으며 말했다.

「단어를 발음할 때 버릇이 있네요. 앞뒤가 맞지 않고 획일적인 의무 교육의 폐해랄까요. 이런 걸 두고 일본식 영어 발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아이는 기본적으로 말이 없어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그렇게까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을 테다.

오랜만에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서 기뻐던 걸까.

잘 모르겠다. 아닌가? 그 아이에게 그런 순수한 인간성은 없을 테니까.

「이름은요?」

역으로 질문을 받아, 난 반사적으로 대답해 버렸다.

아무한테나 개인 정보를 밝히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몇 번이고 잘못하고, 많은 것을 잃어 왔는데.

「난 츠즈라…… 앗, 이름은 치토세야」

「츠즈라? 보기 드문 성이네요. 어떤 한자를 쓰나요?」

「여자아이 이름 같다는 말 안 들어요?」

「항상 그런 말을 듣겠지만, 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상식 같은 건 질색이에요. 그보다 그런 폐쇄적인 사회 특유의 굴레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이국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모든 것에 절망한 듯한 눈빛으로 이쪽을 평가하면서 얘기했다.

「그리고, 나도 같은 질문을 골백번은 들어서 진절머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납득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난 여자애 같은 이름과 겉모습을 지닌 마도카 노조미라고 해요」

그것이 그 최악의 기생충, 피도 눈물도 없는 제비남——아니, 지금은 나의 동료로 함께 활동하는 마도카 노조미 씨와의 만남이었다.

요즘 그 아이는 쥬이스 씨에게 폭 빠진 것 같지만.

사실 그 아이를 처음 발견하고 주운 건 나였다.

그러니까, 정말, 저기, 미안해……?

\* \* \*

「왜 지금 사과하는 건가요?」

내가 울면서 부탁해서, 나 대신 세금 신고 서류를 처리해 주며(이 아이는 사랑을 모르지만 대가를 지불하면 의외로 친절하다) 노조미 씨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렇게 표정이 일그러지면 극단적으로 흉악하게 보이는 위압감 있는 미모.

치아가 드러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사악하게 일그러진 입술.

피를 뒤집어쓰고 그대로 말라붙은 것만 같은, 짙은 검붉음을 머금은 보랏빛 머리카락.

눈동자에 깃든 건, 허무함.

그것이, 만난 그날부터 더욱더 불건전하고 빠뜨어지게 자란 그 아이, 마도카 노조미 씨의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조금 전부터 누구와 대화하는 중인가요? 당신 앞에는 벽뿐이잖아요?」

「엇, 모르겠어——」

가장 많이 하는 말버릇을 무심코 입에 담고 그게 미안해서 두 번째 말버릇을 내뱉었다.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어요, 치토세」

마도카 씨는 겉모습만은 자애로운 여신 같은데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

「나는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니,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상처도 안 받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치토세」

「그 부분만 빼면 좋은 대사인데 말이야. 쓸데없이 서론이 너무 길지 않아?」

「그래요, 쓸데없다고 하니까——」

노조미 씨는 서류에 펜으로 사각사각 적어 가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당신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무턱대고 하는 거죠?」

「엇? 으음, 모르겠어——」

「그 어떤 질문에도 『모르겠어』라고 대답하는 버릇, 질문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만뒀 줄래요?」

내가 원하는 건 사죄가 아니라 설명이에요, 라고 노조미 씨는 완전히 무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니까.

날 위해 표정 근육을 움직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멀쩡하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오늘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할 정도다.

「뭘 웃나요? 나한테 귀찮은 일을 떠넘겨서 기분이 좋은 건가요?」

「아니, 노조미 씨가 기분 좋아 보이는 게 기뻐서」

「내 정서와 당신의 정서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죠?」

「앗, 조금 전의 그 질문에 대답하자면——」

딱히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노조미 씨는 화내지 않지만(왜냐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원하는 것 같아서 설명해 본다.

난 처음 만난 뒤로 2개월 정도 이 아이를 "길렀"는데, 덕분에 이 아이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요약하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면 된다.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

그것이 기르는 사람의 역할.

보답, 즉 웃음이나 감사의 말, 사랑 같은 것을 바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아주 말 잘 듣는 애완동물로 있어 준다.

주변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도 사실 훨씬 키우기 쉽다.

대부분 이 아이의 그런 자질을 알게 되기 전에 싫증 나서 내치지만 말이다.

실제로 나도 2개월 만에 힘들어져서 헤어졌다.

「난 예전부터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다양한 일을 하게 돼」

「손익 계산이 귀찮아지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이지, 쓸데없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할 필요 없을 정도는 벌고 있잖아요——본업에서」

「하지만 언제 내쳐질지 모르니까. 실제로 난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재능, 실력, 실적도 없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부족한 건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레, 화려함이나 사교성 같은 거요. 오히려 대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음, 격려해 줄 것 같은 말투로 지적하고 있네」

「칭찬해 주길 바라면 대가를 지불하세요」

「응. 그게 노조미 씨지」

오히려 이 아이만큼 언행이 변하지 않는 아이도 드문 것 같다.

전보다 훨씬 더 빨리 뼈뚫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단순히 순도와 농도가 더해졌을 뿐이고.

자기 마음속에 확고한 심지가 하나 있는듯해서 무척 부럽다.

나는 아주 심하게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으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다양한 일을 무턱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질문이에요」

「습관이라고 대답했잖아. 모르겠어?」

「왜 그런 습관이 생겼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추가 질문으로 그 습관은 없앨 수 없나요?」

「음, 한 번에 여러 질문을 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만해」

난 머릿속에서 열심히 질문을 곱씹고 어떻게든 대답하려고 했다.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다.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노조미 씨가 조용히 속삭였다.

「……다들 아는 척, 이해해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대화가 성립되는 척을 하는 것뿐이에요」

「응?」

무슨 뜻일까?

「그 점에서 『모른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당신은 일종의 고상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엇, 혹시 칭찬해 준 거야? 저기, 얼마나 내면 돼?」

「저도 무료로 남을 칭찬하는 것 정도는 아주 가끔 합니다만?」

무심코 자신과 맞지 않은 말까지 하며 날 칭찬하고, 아니, 항상 소극적인 나를 격려하는 듯한 말을 해 버리니까 쑥스러워하네. 귀여워.

「그러니까 쓸데없이 웃지 말라고요. 내가 아니었다면, 벌써 주먹이 나갔을 정도로 불쾌하거든요?」

「응. 미안해, 그런데 이것도 버릇이라」

실실 웃으면 말을 잘 못해도 어떻게든 되니까.

다들 납득해 줬으니까.

내 나름의 처세술이랄까?

「당신도 꽤 뒤틀려 있네요. 죠이스는 극단적이라서, 그래서 사랑스럽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 신입 마슈도 겉보기에는 건전하고 올곧아 보이지만, 어딘가 묘하게 편향적인 성격이니까요」

전에 없이 말이 많네, 노조미 씨.

세금 신고 같은 건 노조미 씨에게는 너무 간단해서 뇌가 심심한 것 같다.

「마슈 씨, 좋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호감이 가게 뒤틀렸다는 건가요?」

「미안해. 모르겠어」

「당신은 항상 그 말뿐이네요」

내 의미 없는 대화에 질렸는지 노조미 씨는 서류를 눈으로 가볍게 확인하면서 이쪽으로 정중하게 건넸다.

「불평하는 동안 끝났어요. 그러니 방금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역시 하면 되는 아이네, 노조미 씨는」

「당신이 뭐든 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응. 하지만 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다양한 일에 손을 대게 되네,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아니, 난 그걸 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

\* \* \*

예전의 난 그야말로 무엇이든 하면 되는 아이였다.

나에게 어른의 재능은 없지만, 아이의 재능은 넘치도록 있었다.

같은 나이대 아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달리기를 잘했다. 야구나 축구도 잘했다.

국어나 산수, 그 이외의 과목도 잘해서 백 점 만점이었다.

유행하는 놀이도 누구보다 먼저 잘하는 법을 발견해서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모두에게 칭찬받았다.

카드 게임 대회에서는 전국 우승을 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어른이 되면 아무런 쓸모도 없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사회에서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똑똑한 아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하게 되는 그 질문.

내 대답은, 음, 아무런 도움도 안 돼—다.

아쉽게도.

난 어른으로서 무능했다.

세금 신고조차 제대로 못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방금 노조미 씨에게 지적받은 것처럼 세무사를 고용하는 발상도 할 수

없었다. 어떡하지, 못 하겠어~ 라고 머리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어른이라면 누구든 바로 해결법을 생각해 낼 만한 일인데 말이다.

난 어른으로서는 쓸모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심한 놈이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어설피게 추켜세워진 만큼 자존심 같은 것이 있어서, 난 하면 된다고  
—지금 내가 무능한 건, 나에게 어울리는 일을 고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지금도 그런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 벽을 보고 말을 하는 건가요?」

미안해. 얼굴을 마주하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니까, 최대한 상대를 쳐다보지 않고  
말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 잘 모르지만?

「—나에게 당신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관심도 없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온다. 또 끌어올린 다음에 떨어뜨리는 늘 하던 방식이, 아니, 이번엔 끌어올리지도  
않았네?

「하지만 당신과 처음 만났던 그날, 난 사흘 밤낮을 불쌍한 부랑자처럼 길모퉁이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왜 그런 짓을?

이런 질문을 해봤자 언제나 그랬듯 노조미 씨다운 독특한 논리를 쏟아내서 혼란스러울  
게 뻔하니까, 딱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겠지만.

내 말버릇은 '모르겠어'이지만, 모르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

아마 노조미 씨가 항상 하는 특유의 그거, 어떤 실험이었겠지.

「그런 날 걱정하면서 내가 부랑자를 가장한 도둑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없이,  
단순히 아무런 속셈도 없이 말을 걸어줬던 건—」

노조미 씨에게 난 관심 대상 밖이고 그런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 아이는 금방 잊을  
텐데.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순간에 나에게겐 분명 이 외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신비하고 위대한 기생충에게 대단히—흥미를 느낄 만한 가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 건 당신뿐이었으니까요. 그 친절함 혹은 어리석음을,  
당신 특유의 미덕 같은 거라고 착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기, 지금 칭찬해 준 거야? 날 위로해 준 거야? 기뻐~!」

「.....」

노조미 씨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존중하는 성직자 같은 웃음으로 모처럼 작성한 세금

신고 서류를 구겨서 짓밟았다. 정말 속스러움을 많이 탄다니까.

「그런 점입니다, 치토세」

「엇, 나의 뭐가 어쨌는데? 모르겠는데?」

「이건 속스러운 걸 감추는 것도, 그 무엇도 아니에요. 오히려 난 당신의 그런 점에는 지금도 약간 관심 있는 것 같네요」

「어엇, 그래서 그런 점이 뭔데?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충분히 재밌으니까——무리해서 바뀔 필요는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신기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노조미 씨는 조금 전에 스스로 엉망으로 만든 세금 신고 서류를 처음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 공든 탑 무너뜨리기인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관심을 끄는 존재는 이제 거의 없으니까요……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서 보상이니까, 이 세금 신고 서류는 확실히 처리해 줄게요」

응. 그건 고맙지만, 다시 스스로 망치지 않길 바랄게.

기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의미 없잖아?

「나는 이제 모든 것에 의욕이 없어서 무의미한 행동은 하지 않아요. 조금 전 그 행동에도 당신에게 내가 불쾌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응.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난 뭐든지 잘 모르니까, 딱히 상관없다.

나에게는 어른의 재능은 없고 아이의 재능은 넘치니까.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행복하다고 느끼면 웃을게.

